

#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張 泳 敏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1. 머 리 말
2. 심리전 정책과 기구
3. 심리전의 전개
4. 심리전 효과와 한계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미군은 6·25전쟁 3년 동안 전단만 하여도 25억만 장 이상을 살포하는<sup>1)</sup> 등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효과도 적지 않게 거두었다고 평가된

1) Psychological warfare, Fact Sheet(<http://www.korea50.army.mil/history/factsheet/psychowar.shtml>).

다. 미군은 병력, 무기, 작전, 보급 등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차지하였지만, 심리전 역시 전쟁 초기부터 종전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주도하였다. 한국군의 심리전도 미군의 지휘와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따라서 미군이 전개한 심리전은 한국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의의를 지니는 군사작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의 심리전이 처음부터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돌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군 자체가 심리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더욱 커다란 원인이었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종전 후에는 심리전을 경시하였다. 이런 미군의 심리전 전력이 6·25전쟁을 통해서 크게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심리전 정책을 비롯해서 매체 계획과 제작, 전파 등 각종 야전 작전 능력도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다. 더 나아가 1950년대에 군과 학계에서 심리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연구는 전쟁 당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운용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 등에서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도 드물며, 그나마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는 개인들의 회고담 수준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논문은 몇 편밖에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sup>2)</sup> 그리고 국내의 기존 연구는 내용 중복이나 사실의 부정확한 기술, 연대 오류 등 실수가 여러 곳에 보이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입각한 분석에

2) 황근, 「설득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 『군사』 30, 1990;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1950년 6-12월)」, 『군사』 50, 2003;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2004; 김종숙, 「6·25전쟁기 심리전 운용실태 분석」, 『군사』 53, 2004. 그리고 미군의 심리전이 아니라 한국군의 심리전, 대북전단을 분석한 김성욱의 석사학위논문 「한국전쟁 초기의 심리전에 관한 연구-국방부 정훈국의 대북전단 분석을 중심으로」(연세대 대학원, 1980)이 눈에 띈다.

치우치고 있으므로 정책이나 기구, 작전과 매체 등 심리전의 전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전쟁발발에서 중공군 개입 초기 단계까지 약 1년 간 전개된 미군 심리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기간은 심리전의 준비기로서 인력, 기구, 장비 등 모든 면에서 틀을 잡지 못한 어수선한 상태로서 실제 작전도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수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쟁발발 직후 야전에서 심리전을 주도한 것은 국무부 소속의 주한미국공보원(USIS, 또는 USIE)였다. 따라서 본고는 공보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런 상태를 극복하며 체계를 잡아가던 미군의 심리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무엇보다 먼저 심리전을 일선에서 총지휘한 극동사령부(FEC)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본정책을 만들었던 미국 정부와 일선에서 작전을 수행한 심리전 기구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기능을 담당하였고, 실제로도 작전을 전개하였던 극동사령부 심리전 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 2. 심리전 정책과 기구

### (1) 미국 정부의 심리전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심리전은 전쟁선전국(Office of War Information)과 전략정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그리고 미군의 각 사령부에 소속된 심리전 부대가 수행하였다. 종전이 되자 앞의 두 기관은 곧바로 해체되었으며, 심리전 부대도 부서, 인원, 예산 등에서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 및 소련과의 패권

다툼이 주요한 대외정책 목표로 부상하자, 국무부에서는 해외선전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였고, 군부에서는 해군이 먼저 심리전 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서 1946년 중반에는 삼부조정위원회(SWNCC)에 설치된 심리전특별위원회가 심리전의 기간 정책이 된 SWNCC-304/1을 작성하였고, 이듬해 말에는 ‘해외첩보선전조치의 조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NSC-4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과하여 냉전 초기 미국 해외선전의 목적과 정책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해외선전과 심리전 정책은 NSC-43, NSC-59/1, NSC-68를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되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던 7월 10일에는 국무부 차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가심리전계획’을 NSC-74로 제출하였다.<sup>3)</sup> 이것은 심리전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였던 국무부, 군부, CIA 등이 타협한 산물이었다.<sup>4)</sup> 그리하여 1951년 4월에 NSC-74에 의거하여 심리전의 계획이나 조정 권한을 지닌 심리전략위원회(Psychological Strategic Board-PSB)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무부와 국방부, 또한 CIA가 서로 경쟁하였기 때문에 PSB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sup>5)</sup>

국무부는 NSC-59/1에 의거해서 작성한 6·25전쟁 선전지침을 맥아더 사령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선전관련 부서에 보냈다. 또한 국방부도 참여하는 한국임시정책조정위원회(Ad Hoc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for Korea)가 국무부에 설치되어 매일 열렸고, 맥아더 사령부와도 긴밀히 교신하였다.<sup>6)</sup> PSB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심리전에 관

3) 졸고, 「정부 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1, 2004, pp. 279-81.

4) Edward P. Lilly,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sychological Operations 1945-1951, 1951, Harry S. Truman Papers, White House Central Files: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Files.

5) Gough, Susan L., The Evolution of Strategic Influence, Carlisle Barracks, PA, Army War College, 2003, p. 10. 그리고 PSB의 책임자로 고든 그레이가 임명된 때는 1951년 7월 18일이기 때문에 PSB는 한국전쟁 후반기에나 심리전에 관여하였다고 생각된다.

6) Memorandum for P-Mr. Barrett, July 29, 1950, subject: Summary of Psychological

한 조정기능을 담당하였던, 육군부와 국무부가 구성한 심리전조정위원회가<sup>7)</sup> 이 임시위원회의 후신인 것 같다.

6·25전쟁은 심리전 능력의 강화가 필요함을 깊게 인식시켰다. 1950년 9월에는 심리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독자적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로버트 맥클러 준장을 책임자로 해서 육군본부 G-3 안에 심리전과가 설치되었다. 이듬해 1월 심리전과는 심리전특별참모부(Office of the Chief of Psychological Warfare: OCPW)로 격상되었으며, 참모총장의 특별참모부서로서 심리전과 특수작전의 계획과 실행을 모니터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심리작전과는 선전기회를 담당하였으며, 특별작전과는 게릴라전과 같은 비밀작전을 맡았다. 그리고 5월에는 포트 블랙에서 심리전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고, 심리전에 관련된 기술과 선전 등을 개발하였고, 본격적인 심리전 부대인 라디오 방송전단 집단(Radio Broadcasting and Leaflet Group)을 극동사령부에 파견해서 한국전쟁에서 심리전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또한 CIA와 함께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 (2) 6·25전쟁의 심리전 기구

### 1) 극동사령부의 심리전 기구

6·25전쟁의 심리전 총지휘는 극동사령부에서 담당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극동작전구역(Far East Theater)에는 심리전 담당인원이 7명뿐이었고, 이들은 극동사령부 총사령관본부(GHQ) G-2의 민간첩보과 특수계

Warfare Activities - Korea(자료 2, box 8).

7) Memorandum, to: OII-Mr. Anderson from: IE-Charles?, June 12, 1951, subject: Psychological Operation Coordinating Board(PCB) Meeting(위와 같음). 참고로 전 날 PCB 회의에서는 6·25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영화를 ECA가 제작하였다는 사안 등이 다루어졌다.

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나마 계획 수립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고, 6월 25일 이후에야 심리전 분과(Psychological Warfare Branch: PWB)로 전환되었다. 즉 유엔군사령부로 개편되어 6·25전쟁의 책임을 맡았던 극동사령부는 심리전 준비가 미비하기 그지없었다.<sup>8)</sup>

이처럼 빈약하였던 초기 조직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으로 소개한 주한미국공보원의 미국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PWB에 가세함으로써<sup>9)</sup> 커지기 시작하여, 10월 말에는 장교가 10명, 민간인이 15명이 근무하게 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다른 부서에서 온 지원인력을 제외하고도 장교가 15명, 사병이 6명, 민간인이 34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55명 가운데 통역관과 한국과전자가 각각 14명이었으므로, 여전히 적은 인원이 극동사령부에서 심리전을 총괄하여야 하였다. 또한 전황에 따라서 인원과 직무가 빈번히 이동하였으므로<sup>10)</sup> 작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웠으므로 임무수행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동안 한국과 동아시아의 모든 심리전은 극동사령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였고, 그 정책은 목적, 주제, 기술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들이었다. 심리전을 총지휘한 PWB는 본국 정부차원에서 수립되어 내려온 정책에 의거해서 선전 주제와 스케줄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주간계획(Weekly Plan for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과 정책가이드라인(Policy Guidance Memoranda)의 형태로 하급부대에 내려 보냈다. 제8군 심리전과처럼 일선의 심리전 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작전을 실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8군 사령관과 참모는 자체의 심리전 정책을 보완할 수는 있었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제약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매끄러운 것은 아니었다.<sup>11)</sup> 또한 PWB는 전선에 투하할 전단을

8) 자료 11, p. 13.

9) Incoming Telecom, from: Tokyo to: secretary of State, no :55, July 7(자료 3).

10) 각주 12.

11) Chapter 1, Psychological Warfare Policy, Introduction(자료 9).

제작하여 태평양공군 항공기로 전선에 살포하였고, “유엔군사령부의 소리”(VUNC)를 동경에서 운용하였다.

이듬해 6월 PWB는 G-3 아래로 들어가 심리전부(Psychological Warfare Section)로 확대되어 총사령부의 특별참모 부서로 승격되었고, 6·25전쟁 심리전의 총책임을 맡는 동시에 전략심리전을 주로 전개하였다. PWS는 기획정책과, 첩보과, 작전과, 특별제작과로 구성되었다. 8월에는 미국에서 증파된 제1라디오방송전단집단이 여기에 배속되었다.<sup>12)</sup> 이 부대는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신문과 전단을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유엔군사령부의 소리를 제작해서 방송하였다.

## 2) 제8군 사령부의 심리전 기구

6·25전쟁에 즉각 투입된 제8군에 심리전 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당시에는 인원과 장비 등의 면에서 아주 열악하였다. GHQ에서 파견된 소령 1명과 사병 1명이 유일한 심리전 병력이었다. 그 후 장교와 사병 소수가 파견되었고, 이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심리전 작전을 도왔고, 몇 명은 제8군의 G-2에 일시적으로 배속되었고, 뒤에 몇 명은 제10군단에 배속되었다.<sup>13)</sup> 그들은 제8군의 전단살포 요청을 극동사령부에 올리거나, 때로는 일선 부대의 요청에 따라서 전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파견요원들의 활동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원과 장비 부족으로 제약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을 돌파해서 북진할 때처럼 심리전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공세기에 충분한 심리작전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sup>14)</sup> 이러한 상태는, 심리전 책임이 G-3에 재배정되고, 그 아래에 심리전과가 설치되었

12) From: Historical Report, 10 November 1950, 1st L and L Co(자료 10), pp. 32-4.

13) Chapter 2, EUSAK Psychological Warfare Agencies(자료 9), p. 14; 자료 12, p. 39.

14) Action: EUSAK Psychological Warfare, Interviewer: Captain Max W. Delester, Military History Section, EUSAK, Time/Place: 20 Oct 52, Seoul, Korea, Interviewee: Major B. C. Mossman(자료 10), pp. 19-30.

던 195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포트 릴리에서 온 제1확성기전단(1st Loudspeaker & Leaflet) 중대가 1950년 11월 4일 서울에서 8군 휘하에 편성되었다. 이 부대는 야전군의 전술선전 작전을 수행하고, 심리전 전문가를 고문관을 야전군에 파견하는 임무를 띠었다. 그렇지만, 이 중대는 12월까지 장비문제로 활동하지 못하였다.<sup>15)</sup> 1월에 들어 4개 확성기팀 등이 제8군 G-2 심리전부에 배속 신고를 하였고, 확성기 팀은 군단과 일선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3월까지도 늦은 장비수송 때문에, 그리고 토착 중국어 통역관이 배속되지 않았으므로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제8군의 심리전 수행은 극동사령부 PWB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다. PWB에서 선전 주제와 각종 지침 등이 실린 주간계획과 정책 가이드스, 그리고 제8군이 살포하는 전단의 상당량과 살포 스케줄을 내려 보냈다. 그렇다고 제8군의 심리전 작전이 완전히 PWB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8군 자체적으로 전단의 주제를 변경하고, 전단의 1/6 정도는 자체 제작하고, 살포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다. 여기에 확성기를 이용한 작전은 독자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영역도 구분하여 유엔군과 공산군이 대치한 전선 40마일 북쪽은 PWB가 맡지만, 그 아래는 제8군이 맡았다. 이것은 극동사령부가 전략심리전을, 제8군이 전술심리전을 수행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제8군이 극동사령부의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제8군은 조정과 양해를 통해서 작전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 3) 주한미국공보원

미국공보원은 1947년 5월 미국의 대한선전을 목적으로 제24군단의 특별

15) From: Historical Report, 10 November 1950, 1st L and L Co(위와 같음), p. 32.

16) EUSAk Psywar's Relationship to FECOM(자료 12), pp. 12-3.

참모부서로 창설되었다.<sup>17)</sup> 그리고 전국 각도의 도청소재지를 위주로 9곳에 공보관을 설치하여 지방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거점으로 삼았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1월 1일부로 소속이 육군부에서 국무부로 정식 이관되었으며, 미국공보원이라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영문이름은 바뀌었다.<sup>18)</sup> 6·25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직원의 숫자는 미국인 30명, 한국인 319명으로 당시 미국의 해외공보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그리고 공보원장 제임스 스튜어트는 미국 대사관의 공보관을 겸임하고 있었다.

전쟁발발 직후, 극동사령부의 심리전 책임자로 임명된 그린 예비역 대령은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서 심리전 기구와 인원을 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8군에서 심리전 책임을 부여받은 G-2에도 작전 부서가 없었기<sup>19)</sup>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보원의 직원과 설비를 활용하여야 하였다. 전쟁 초기 현장에서 심리전을 전개한 것은 공보원뿐이었고, 군대는 비행기로 전단을 살포하고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미 국무부도 전쟁상태에서 대외선전과 심리전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였으므로 그 첫 사례가 되는 주한공보원의 심리전 참여와 주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sup>20)</sup>

이때 전선에 긴급 투입되어 심리전을 책임졌던 공보원장 스튜어트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OSS 대원으로 정보와 선전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8군의 심리전 책임자가 된 경과는 불분명하지만, 대전에서 제25사단 사단장 딘 소장에게 임명을 받았다고 한

17) 졸고,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16집, 2001 봄호, pp. 149-154.

18) 24군단의 Office of Civil Information(OCI)가 국무부의 해외선전기관인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s(USIS)로 변경되었고,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USIE)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9) Chapter 2, Introduction(자료 9), p. 14.

20) Rolf Jacoby, USIE KOREA-An Experiment in Wartime Operations, William E. Daugherty,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 The Johns Hopkins Press, 1964, pp. 225-7.

다.<sup>21)</sup> 그밖에 6월 27일 일본으로 소개되었다가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다섯 명의 미국인 직원이 한국인 직원들과 더불어 대전과 대구에서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sup>22)</sup>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한 10월에 이르러서 국무부는 공보원을 본래 업무로 복귀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서 공보원의 활동도 군사적 심리전에서 남한의 재정향과 재교육으로 옮겨가려고 하였고,<sup>23)</sup> 북한점령 이후 실시할 재교육과 재정향 정책에 공보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수립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급변하였고,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중국군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되고 휴전회담이 열린 1951년 하반기에 이르면, 미군 자체의 심리전 능력이 충분히 강화되었으므로, 공보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군사작전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고, 제8군과 공보원은 지리산 대빨치산 심리전과 선전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4)</sup>

6·25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에는 공보원의 목적과 임무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sup>25)</sup>

한국전쟁 중 공보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엔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한국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를 경우에는 미국의 목표가 우선된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21) Memorandum for P-Mr. Barrett, July 27, 1950, Attached Memorandum(자료 6, box 18).

22) 자료 2, box 7.

23) Memorandum, to: FE/P-Mr. Harris from: IE-Charles N.Hulten, Oct. 11, 1950, subject : Plans for Resumption of USIE Operations in Korea(자료 21, box 45).

24) Incoming telegram, from: Pusan to: Secretary of State, no: 606, December 24(자료 4).

25) National Intelligence Survey 41, Korea, section 58, Propaganda, Central Intelligence Agency(국방군사연구소 편찬, 미국중앙정보국보고서, 한국전쟁 자료총서 15, 1997), p. 181.

- 가. 남한 주민이 미국과 유엔의 대한 목표에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한다.
- 나. 미국공보원이 맡은 바 선전책임을 수행해 나가면서, 공보원 시설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유엔군 각 기관을 돕는다.

이처럼 공보원의 목적은 전쟁승리를 위해서 유엔을 지원하고, 남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전쟁 전의 교육문화사업은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였고, 선전대상도 한국의 관리와 여론 주도층에서 청년단체와 지도자, 피난민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공보원의 주된 활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무작전이었다.

#### 4) 상호관계

미국의 심리전 정책과 기구는 아직 틀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가 6·25전쟁이 일어나자 겨우 OCPW를 창설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6·25전쟁 초기 심리전에 관련된 정책이나 기구도 많은 혼선과 알력, 또한 그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었다. 전쟁발발 소식이 전해지자, 국무부는 대외선전 정책을 관장하고 있던 부처로서 심리전 준비에 들어갔다. 국무부 관리들은 국무부의 대외선전 활동계획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심리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공보원장 스투어트를 심리전의 총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26)</sup> 국무부는 부처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도권을 장악하는 듯하였지만, SWNCC 304에 따르면, 국무부의 대외선전기구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작전구역(Operation Theater)의 사령관에게 소속되어야 하였다.<sup>27)</sup> 이에 따라서 공보원은 극동사령부의 지휘 아래 심리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의

26) Memorandum, from: IFIS Oren Stephens to: IFIS Mr. Stone, Date, 6.28.50, subject : PW in Korea(자료 6, box 18).

27) 각주 4.

역할은 6·25전쟁에 관련한 대외선전 업무나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심리전 정책지침을 만드는 데 국한되었다.

심리전의 지휘와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부처의 갈등은 극동사령부와 공보원 관계에서 그대로 재연되었다. 제8군의 심리전 책임자로 임명받은 스투어트는 그 상급부대인 극동사령부의 G-2에게 작전명령을 받고 활동이나 장비 등에 관해서 보고할 의무를 갖는 등 심리전의 주도권을 극동사령부 쪽에 빼앗기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가졌던 스투어트는 자신이 현장책임자이므로 전단과 라디오 대본작성과 전파방법, 즉 심리전의 실질적인 권한은 자신이 맡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sup>28)</sup> 그러나 공보원은 제8군과는 처음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였다.<sup>29)</sup>

공보원 외에도 심리전 작전에 관여하는 CIA 등 다른 기관들은 극동사령부의 G-2를 거치지 않고 GHQ, 다시 말해서 맥아더 원수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참모진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양측이 알력을 일으켰다.<sup>30)</sup> 이와 같은 갈등은 관련자 상호간의 성격과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였겠지만, 심리전의 지휘부와 실행부가 군대와 민간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고, 후방인 동경과 야전이라는 활동지역의 분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Letter, from: James L. Stewart to Ralph, August 30, 1950; Memorandum, to: IE-Mr.Hulten from: PRS-Heath Bowman, October 13, 1950, subject: Bradford Report on Korean Operation(자료 6, box 45)

29)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Taegu, Korea, to: secretary of State, August 7, 1950, subject: Transmitting Monthly Activity Report of USIE, Enclosures 1. Report of USIE, Korea, for the Month of July 1950(자료 1). 전쟁 초기 공보원의 활동에 관련한 기술 가운데 각주를 보이지 않은 것은 Enclosure 1을 참고.

30) Memorandum, to: IE-Mr.Hulten from: FE/P-W. Bradley Connors, date: August 7, 1950, subject: Korean Operation, Attachment: Mr. Bradford's letter of July 22(자료 6, box 45).

### 3. 심리전의 전개

#### (1) 전쟁발발과 심리전의 개시

태평양사령부의 PWB는 전쟁이 발발한 지 24시간도 안 되어 주한미국군 사고문단이 사용할 전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심리전 작전은 공군 C-46 수송기가 6월 28일 트루만 대통령의 6·25전쟁 개입선언을 담은 전단을 진격하는 인민군과 점령된 남한지역에 살포한 것이었다. 전단의 내용은 미군이 곧 침략자를 물리치러 올 것이므로 주민들은 진정하라는 것이었다.<sup>31)</sup> 이어서 이튿날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같은 사실을 알렸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단살포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았으며, 이에 따라 7월 3일에 세 번째 전단이 살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외로 긴박해져 갔으므로 이와 같은 심리전 방식은 오래갈 수가 없었다.

긴급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선전 내지 심리전 활동을 전개할 미국의 기관은 공보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보원도 서울에서 철수한 직후였으므로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였지만 동시에 작전을 전개해야 할 상황이었다. 특히 7월과 8월 2달 동안은 미군의 심리전 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공보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였다. 전쟁 초기 공보원의 심리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공보원장 스투어트는 무초 대사와 함께 서울에서 탈출해서 수원을 거쳐 6월 28일 임시수도인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대전공보관에서 그곳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는 등 활동을 개시하여 맥아더 원수의

31) Stephen E. Pease, *PSYWAR—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1953*, Stackpole Books, 1992, p. 27.

한국전선 방문을 알리는 선전전단을 제작하여 국군 비행기로 살포하도록 하였고, 주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전단 2건을 극동사령부에 보냈다. 또한 대전방송국에서도 이 소식을 방송하도록 하였다.

7월 6일부터 대전공보관은 뉴스 센터 기능을 가동하여 각종 뉴스 자료를 발행하였다. 전쟁 전에 국무부 INP가 통상적으로 보내던 Wireless Bulletin, 서적, 사진, 음반, 연설문 등의 자료는 대전과 대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신하여 활용하였다. 스투어트는 이런 자료를 가공해서 자료로 내놓기 시작하였고, 매일 뉴스 블리틴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였고, 건물 옥상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하루에 네 차례 방송하였다. 또한 자체 제작한 특별프로그램 시리즈를 대전방송국을 통해서 방송하였다. 외곽지대에는 이동선전차 3대를 운행하여 연설과 전단살포를 하였다. 또한 스투어트는 한국인과 미국인 직원으로 다섯 개의 편집진을 조직하여 다섯 분야로 구분한 선전대상, 즉 국군, 남한 주민, 초기 점령지역의 주민, 적군, 북한 주민 용도의 선전물 계획과 제작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보원은 이렇게 활동하며 대전에서 열흘을 보냈고, 전세 악화로 15일에는 대구로 철수하였다. 대구로 이동한 이튿날부터 공보원은 대전에서처럼 뉴스 자료 제작을 비롯해서 포스터와 전단지제작과 살포, 이동선전차 파견, 라디오 방송 등 각종 활동을 재개하였다. 또한 외국 특파원들도 공보원을 통해서 전황을 취재하였다.

공보원은 한국정부, 국군, 민간인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였다. 정부선전기관인 공보처는 대전과 대구를 경유 부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거의 전적으로 공보원의 도움을 받아 선전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선전에 참여한 정부기관은 문교부와 육군, 국회가 있었고, 중앙의 신문사나 교회 등도 공보원의 지원을 받았다. 맥아더의 한국전선 방문 자료는 한국군 비행기가 살포한 최초의 전단에 활용되었다. 더구나 한국경찰과 군대는 4개 지역신문과 피난민 신문, 라디오 방송국을 허위 보도를 한다고 압력을 가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관계 보도자료에 대한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공보원

의 뉴스 자료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공보원의 활동 가운데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도 자료이다. 이것은 전쟁이전 공보원의 평상 활동의 한 가지였으며, 전쟁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국내의 각종 언론매체와 정부기관에 제공되었다. 더욱이 언론매체들이 전쟁으로 뉴스제작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공보원의 보도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7월에 각 신문들이 공보원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한 기사를 일례로 들어보자.<sup>32)</sup> 공보원이 7일과 8일에 제공한 뉴스 아이템은 모두 14개로서, “한국에 관한 결의는 유엔의 실력을 선양한 것이라고 유엔 관리가 언급”, “한국에 대한 해상봉쇄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었다”, “임병직 외무부장관이 43개국에 메시지를 보내다” 등이 국제통신, 동방신문, 충청매일, 평화일보, 대한신문에 편집되어 기사로 실렸다.

그리고 언론매체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청년단체 등에도 배포된 ‘시사해설’과 같은 뉴스 자료도 있었다. 이것은 라디오 방송의 뉴스 논평의 대본이다. 8월 2일에 11호로 나온 시사해설의 소주제를 살펴보면, “오늘 군사령부에서는 많은 후원부대가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군은 점점 강하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군은 함흥 공업중심지에 약 사백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공산군 당국도 그들의 막대한 폭격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상 고-든 멘지스씨는 어제 호주 지상군을 가능한 한 일 이 주간내에 파송하겠다고 엄명하였습니다” 등이다.<sup>33)</sup>

이처럼 공보원의 작전은 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남한 주민들은 기습적인 남침으로 혼란에 빠진데다가 서울과 대전을 연거푸 함락당하였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정부와 군대를 믿을 수 없으며, 인민군의 빠른 진격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소

32) 각주 29, Enclosure 3. Press Liaison Reports.

33) 각주 29, Enclosure 2. Today's Topics.

문까지 무성하였으므로 혼란과 불안은 가중되었다. 공보원이 미국의 지원과 참전, 전황에 관한 소식 등을 전함으로써 주민과 관리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고자 하였던 노력의 효과가 적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피난민들은 전쟁의 참화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선전으로 쉽게 설득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9월경 경북 청도군에는 충청남북도와 강원도에서 내려온 25만명이 피난민수용소에 수용되었고, 공보원 직원들이 수용소를 찾아가서 유엔군이 반격을 가했으므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직접 전달하였고, 또 공공 앰프시설로 방송도 하여 대단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sup>34)</sup> 1·4후퇴 당시에도 국무부가 내린 주간 가이던스에서도 피난민 대상 선전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들은 적군에게 인력이나 물자를 제공할 수도 있었으므로 공산군을 피해서 피난길에 나섰다는 것 자체를 격려하고, 농민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피난하게 되었다고 최대한 선전하도록 지시하였다.<sup>35)</sup> 그리고 피난지시라는 것을 행정지도 외에 전단 등 매체로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보원의 심리전 체계는 적어도 8월 초순까지는 틀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심리전 관련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업무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초기의 심리전이 부적절하였던 이유는 무엇보다 통합된 야전지시의 부족과 열악한 통신사정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뉴스 전단의 농촌지역 공중 살포, 아군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확대되고 조정된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리전에 관련된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적군을 겨냥한, 전단과 방송에 의한 전술적 심리전을 당장 실행하여야 하지만, 심리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34) Letter, from: John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8, 1950, subject: Transmitting Copies of USIE Leaflet, "A Message to Refugees"(자료 4).

35)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Public Affairs Staff, USIE Weekly Guidance Notes for the Far East no. 41, January 9, 1951(자료 6, box 3).

인력이 보장되고 라디오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2) 심리전의 목표와 주제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7월 10일 극동사령부의 PWB는 심리전 기본정책의 개요, 즉 정책 가이드스(Policy Guidance) 제1호를 만들었고, 이듬해 1월 초까지 제23호를 발표하였다.<sup>36)</sup> 이 지침에는 심리전의 목표와 주제가 제시되어 있었고, 제작부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라디오와 확성기의 대본을 썼고, 전단을 디자인하였다.<sup>37)</sup>

정책 가이드스가 제시한 전쟁 초기 심리전의 목표는 미군의 6·25전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된 원칙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의 관점에서 항상 말한다’, ‘내전이라고 하지 말고 침략이라는 말을 쓴다’ 등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목표는 ‘인민군의 전력 과 저항을 약화시킨다’, ‘북한 주민에게 전쟁의 진실을 알린다’, ‘남한 국군과 주민의 사기를 양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인민군의 침략을 소련이나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다. 예컨대 정책 가이드스 제1호에는 ‘북한에게는 꼭두각시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소련이나 중국 공산주의자에게 직접 관련짓지 말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엔의 협조를 거부한 소련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거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38도선 돌파와 중국군의 참전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대상이었다.

흔히 전략, 전술, 선무 주제로 구분되는 선전 주제는 전황과 심리전 정책

36) Policy Guidance(자료 11), pp. 30-2.

37) Press Release:4 Korean Stations Relay Voice of America Broadcasts, SCAP,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RG 331, Allied Operational & Occupational Headquarters, World War II, SCAP, Information Division, Radio Branch, Topic Files, 1945-51, box 5313.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 가이드언스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에 따라 주제도 변경되었다. 정책 가이드언스에는 다양한 선전 주제가 수십 개씩 제시되었으므로 제8군과 같은 일선 부대에서 제시된 주제 목록에서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sup>38)</sup> 8월 8일에 나온 기본 주제는 32가지였는데, 대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로의 인간적인 대우, 공산군의 침략계획, 북한 식량의 시베리아 인출 등이 전형적인 선전 주제로 모두 북한 지역에 살포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하였던 상황에서 하달된 4개 주간계획의 선전 주제는 투항 권고와 저항의 무모함에 집중되었다. 또한 남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 양양에 관련한 주제는, 비록 인민군이 불법적으로 침략하였으나, 유엔이 한국을 지원할 것이므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8월 주간계획에는 적 지역 주민에게 폭격 경고를 하는 주제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 유엔군의 강화, 국군의 용맹성, 그리고 유엔과 반공에 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시된 25개를 약간 넘는 주제는 주로 항복 권유와 사기 저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sup>39)</sup> 2월경에 사용된 주제로는 배고픔, 동상, 유엔군의 물질적 우위, 적군의 비행기 공포, 포로의 인간적 대우, 적의 손실, 중국공산정권의 비난 등이었다.<sup>40)</sup>

전쟁 희생자가 된 남한 주민들의 비난과 고통의 화살을 공산측으로 돌리는 것은 유엔군 선전의 주요한 목표였다. 이와 같은 반공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밀한 방법을 구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침의 직접적인 하수인’ 소련과 중국에 복종하는 매국노들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국을 파멸로 이끌었고, 외국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도록

38) 각주 11. 그런데 PWB가 내려 보낸 주제는 대부분 라디오 방송에 관련된 것이었고, 후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선의 적군을 대상으로 하는 8군의 심리전에는 크게 활용될 수는 없었다(자료 12, p. 45).

39) 자료 12, p. 50.

40) 자료 10, p. 189.

한다' 등의 연사로 혈돋았다. 소련이나 중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6월 25일의 남침이나 중국의 개입을 명령하였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전 주제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공산주의자들은 한민족을 해치려고 하지만, 자유세계는 한민족을 돕는다는 주제로 한국민족주의를 이용하여 반공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데 민족주의를 활용한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한국을 침략하는 공산주의의 도구이며, 소련과 중국 지배에 복종하는 반역자들을 한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외국 공산주의 주인을 위하여 한국을 파괴하고 노예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과 '소련은 한국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며,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이며, 침략군을 만든 책임자이다, 중국은 전쟁을 연장시킨 장본인으로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다, 한국을 복속국으로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공주의 선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정책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므로 전쟁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은 가장 좋은 주제로 여겼다.<sup>41)</sup> 이외에도 소련은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전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sup>42)</sup>

반공의식과 더불어 중요한 선전 주제는 한국인들에게 친유엔적인 의식과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유엔은 평화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화의 수호자임을 보여주려는 선전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실행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과 한국인의 이익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선전정책이었다. 민주적인 관점, 목적, 정책은 유엔의 이름으로 선전매체에 실렸다. 한 마디로 소련은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는데 반하여 유엔은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41) Pol Memo 39, 9 May 51, Anti Communist Propaganda(자료 10), pp. 11-2.

42) chapter1(자료 9), p. 5.

### (3) 심리전 매체

#### 1) 전 단

전단은 가장 일반적인 선전매체이며 효과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과 확성기 방송처럼 인간의 청각에 의존하는 매체는 특정한 시간과 지점에 있는 대상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 효력의 지속성도 전단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인쇄매체인 전단은 제작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작전 중에 안전도 확보되며, 전달 대상과 지역,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크게 덜 받고, 대상이 전단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효력도 지속되며, 특히 전세가 불리할 때에는 투항 의사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전단은 6·25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된 가장 중요한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7월 9일까지 공보원에서 제작한 전단에는 맥아더 원수의 한국전선 방문 10만장, 농민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 3만장, 미군의 소개와 활동을 실은 것 20만장이 포함되었다.<sup>43)</sup> 그리고 극동사령부에서도 트루만 대통령의 성명 전단과 유엔 전단 등을 초기부터 대량으로 살포하였다. 그 내용과 목적 등을 살펴보면, '미 국대통령의 성명'은 부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군 침략에 관하여'로 철퇴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북한군에게 미군을 동원하여 직접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며, 맥아더 원수의 내한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원조한다는 결의를 표시하는 것이며, 유엔의 것은 침략자를 대한민국에서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으로 선전 대상은 남한 주민이었다. 이밖에 대구와 부산에 살포된 전단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단에는 공습으로 폭파되는 다리 사진을 함께 실어 공포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공산주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였

43) 각주 29.

다. 또한 인민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귀순병 환영증(Safe Conduct Pass)’도 살포했다.<sup>44)</sup>

장비와 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7월까지 약 2,500만장의 전단이 인쇄되어 대부분 남한 지역에 공중 살포되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남한 주민의 사기양양이 더욱 시급하고 중대하였기 때문에 선전의 주제와 대상은 그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인민군을 대상으로 한 전단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sup>45)</sup> 7월 중순경까지 비행기가 전단을 살포한 것은 7차례였으며, 그 중 절반은 주민에게, 그리고 절반은 인민군에서 뿌렸지만,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목표를 벗어났다. 9월 5일 현재 살포된 전단은 모두 4,200만장이 넘었고,<sup>46)</sup> 반격 작전이 시작된 9월 중순 이후에는 공산군이 심리전의 주된 대상이 되어 엄청난 전단 세례를 받았고, 1950년 12월 말까지 총 1억 6,700여만 장을,<sup>47)</sup> 그리고 1951년 1월부터 9월까지 극동사령부와 제8군은 한 달에 4,800만장의 전단을 뿌렸다. 이 시기에는 공산군의 전방선과 예비병력이 주된 대상이었다.<sup>48)</sup>

극동사령부의 PWB는 10월 말까지 64종류의 전단을 생산하였다. 전단은 8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전통행증명서, 포로에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 음식, 치료, 귀환에 중점을 둔 극동사령부와 제8군의 메시지, 피난 지시, 유엔에 관련한 주제, 전황 보고, 낙하산 뉴스, 기타였다. 공보원은 1950년 10월에 이르러 인쇄시설 부족으로 전단을 비롯한 인쇄매체를 별로 제작하지 못하였다. 이듬해 3월에 보고에 따르면, 도시 밖에서는 유일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 『세계신보』만 겨우 25만부를 인쇄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49)</sup> 심지어 제8군도 용지 부족으로 전단 제작에 차질을 겪기도 하였다.

44) 자료 8.

45) 각주 39.

46) Incoming Message, from: CINCFE TOKYO JAPAN TO: DEPTAR WASH DC FOR CSGOGPO AND CSGID, NR: C 62719, 10 SEP 50(자료 5).

47) 자료 11, Table I, p. 16.

48) 자료 22, p. 94.

1951년 봄에는 전단 제작을 주당 1,300만장으로 두 배 늘리고, 매일 13시간 하는 한국어 방송에 중국어 단파방송을 추가하는 것을 논의하는 전략계획도 실행되었다.<sup>50)</sup>

PWB가 전단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생산해서 직접 투하하거나 약 10% 정도는 제8군 등에 제공하였다. 때로는 제8군이나 국군과 같은 일선부대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하기도 하였다.<sup>51)</sup> 혹은 군단이나 사단에서도 전술적인 목적으로 전단을 생산해서 연락기처럼 소형 비행기로 살포하기도 하였다.

전단은 주로 PWB가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B-29를 이용하여 직접 살포하거나 제8군으로 보내어 사용하도록 하였다.<sup>52)</sup> PWB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제8군과는 다른 전단을 생산하였다. PWB는 이미 정해진 표준적인 주제를 한두 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전단을 제작하였지만, 제8군은 “편을 쪼갬” 최신 정보에 의한 전술적 상황과 특정한 적의 부대에 맞는 전단을 생산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양측이 나눠서 맡고 있는 전략작전과 전술작전의 차이가 전단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효과적인 전단은 우선 문맹자도 알 수 있는 그림에 단순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고, 긴 정치적 글을 적어 놓은 것은 비효과적이었다.<sup>53)</sup>

전단의 내용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지만, 비행기로 살포하는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1950년 12월 10일 이전만 하여도 공군은 B-29 2대로 일주일에 2회만 전단 살포 작전을 하였다. 심리전 지원을 강력히 요청받은 공군은 일주일 내내 매일 1회씩 출격하기로 하였다.<sup>54)</sup> 12월

49) Incoming Telecom, from :Pusan to :Secretary of State, no:944, May 12, 1951(자료 5).

50) 각주 1.

51) 자료 11, pp. 22-3.

52) Leaflet(자료 12), pp. 70-2.

53) Stephen E. Pease, 앞의 책, pp. 90-2.

54) 자료 14.

12일까지 PWB가 제작해서 살포한 전단은 1억 4,700만장에 이르렀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전단을 넣어 투하한 M-16 폭탄 가운데 70% 가량만이 제대로 작동하여 전단을 살포한다고 보았다. 폭탄 등 전단을 투하하는 장비가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런 불만족한 수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비행은 주로 밤에 하였고, 아군과 적군이 대치하는 상황이라면, 피아가 정확히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전단이 어느 쪽으로 날아갈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승무원들은 브리핑도 충분히 받지 못하였지만, 살포 효과는 더욱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전에 큰 열의를 가지기 힘들었다. 그래도 1950년 말에는 심리전의 체계가 종전보다는 훨씬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단이 비행기만으로 살포되는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주민들에게 직접 배포하였다. 포탄에 전단을 장전하여 대포로 특정 지점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방법도 사용하였지만,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한다.

## 2) 라디오 방송

선전매체로서 라디오 방송은 장점과 단점을 비슷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점은 무엇보다 메시지의 도달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라디오 수신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던 단파 라디오는 더욱 그러하다. 즉 방송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각종 정치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매체였다. 전투하는 군인이 라디오를 소지하며 적의 방송을 들을 수 없으므로 라디오는 특정 대상에게 단기적이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전술 심리전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 심리전에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라디오 수신기 보급이 미미한 실정에도, 전파방해와 수신기 회수 등으로 적의 선전방송 수신을 극도로 막을 수도 있었으므로 청취자 확보가 매우 어렵기도 하였고, 몇 명이 청취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할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적의 방송을 위협을 무릅쓰고 듣는 행위는 상당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피아 양측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며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극동사령부의 PWB는 한국의 라디오 방송국의 운용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8군은 한국정부와 연락을 담당하였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용 등 정책 수립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심리전 라디오 방송으로는 ‘미국의 소리’, ‘유엔군사령부의 소리’, KBS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보원의 방송 세 가지가 중요하였다. 미국의 소리는 뉴욕에서 제작되어 호놀룰루와 마닐라의 중계를 거쳐 일본과 한국의 방송 네트워크를 타고 방송되었다. 유엔군사령부의 소리는 전쟁 초기에 PWB가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날마다 30분씩 라디오 방송을 하였고, 7월 6일에는 북한을 향하여 매일 15분짜리 프로그램을 방송하다가 14일에는 30분으로 늘렸고, 다른 주파수로 두 번 더 재방송하였다. 18일에는 남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로 전하는 15분짜리 뉴스 방송을 추가하였다. 전쟁 초기 공보원은 KBS 지역 방송국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프로그램의 편성과 송신에 이르기까지 지원하였고, 독자적으로 제작한 30분짜리 프로그램 2가지도 방송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 남북한의 주민들을 향하여 중파와 단파로 밤마다 서너 차례씩 방송되었다.<sup>55)</sup> 이때 라디오 방송은 가장 좋은 매체로 손꼽혔으나, 북한에서는 라디오가 몰수되고 있었으므로 그 효과는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서울이 함락되자, KBS 대전방송국이 미국의 소리의 모든 한국어 방송을 부산, 대구, 이리, 광주로 중계하였지만, 출력은 겨우 500와트에 불과하였고,<sup>56)</sup> 이런 중계마저도 전력 공급 사정으로 며칠을 가지고 못해서 중단되

55) 각주 29.

56) Incoming Telecom, from: Tokyo to: Secretary of state, no: 7, July 1; Memorandum, to: S-The Secretary from: P-Edward W. Barrett, no: July 1(자료 3), 1950;

기도 하였고,<sup>57)</sup> 복구가 되었어도 하루 겨우 2시간밖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국은 가능할 때마다 방송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남한 주민의 라디오 수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sup>58)</sup> 함락 지역이 많아지자, KBS의 네트워크는 붕괴 상태가 되고 말았고, 각 지역 방송국은 제각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부산과 마산방송국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중계하였고, 역시 이곳에서도 군당국이 신뢰성을 얻지 못할 전쟁 소식을 방송하도록 하였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일본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뉴스를 접하였기 때문에 공보원은 군당국과 협의하여 군당국의 공식적 발표와 공보원의 보도자료만을 방송한다는 타협책을 만들어냈다.<sup>59)</sup>

7월 초순 대전에서 대구로 후퇴해야 할 상황이 되자, 대전으로 공수되었던 단파송신시설을 다시 대구로 옮겨 조립해서 가동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부산과 마산방송국에서 이 단파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였다.<sup>60)</sup> 대구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을 위해서 공보원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온힘을 다하였다. 그런 덕분에 대구방송국은 미국의 소리, 유엔방송, 공보원의 “시사해설”을 방송하는 것 외에 “기독교의 시간”, “가정 시간”, “학생 시간”, “나라의 소리”, “예술협회 시간”, “군대를 위한 음악”과 같은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고, 이밖에 공보원을 비롯한 국내외 통신사의 자료로 제작한 15분짜리 뉴스를 매일 아홉 번씩 방송하였다. 동경에서 지원받은 녹음기를 활용하여 각료의 발언 등을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공보원은 7월 26일부터 방송 대본인 시사해설을 2,000매씩 인쇄하여 국군, 경찰, 청년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뉴욕에 있던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러시아 출생의 책임자 아래 14

Incoming Telecom, from: Korea to: Secretary of state, no: 6, July 2; Incoming Telecom, from: Tokyo to: Secretary of state, no: 20, July 3(위와 같음).

57) Incoming Telecom, from: Tokyo to: Secretary of state, no: 74, July 9(위와 같음).

58) Incoming Telecom, from: Tokyo to: Secretary of state, no: 128, July 13(위와 같음).

59) 각주 29.

60) 상동.

명의 한국인들이 제작을 담당하였다.<sup>61)</sup> 국무부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의 소리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KBS와 AFRS는 물론이며 미국 동부와 서부의 송신소도 활용하였고,<sup>62)</sup> 특히 호놀룰루와 마닐라에 있던 미국의 소리중계소는 특별 음악방송 등을 하면서 채널을 열어두고 비상방송에 대비하였다.<sup>63)</sup> 6월 28일 트루만 대통령이 6·25전쟁 개입을 선언하고, 공군과 해군에게 내린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을 미국의 소리는 그 날 정오부터 6시간 동안 한국어를 포함해서 4개 국어로 방송함으로써 본격적인 심리전에 돌입하였다.<sup>64)</sup> 미국의 소리는 네 가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그중 한 가지는 유엔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도 미국의 소리는 30분짜리 뉴스와 논평, 그리고 15분짜리 뉴스 두 가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sup>65)</sup> 뉴욕에서 발신된 단파방송은 호놀룰루와 마닐라에서, 그리고 한국의 KBS 네트워크와 일본의 NHK 네트워크에서 중파방송을 동시에 중계하였다. 남한 상당부분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였던 시기에는 미국의 소리를 중계할 수 있던 방송국은 12곳 중에서 4곳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전력 사정으로 불안한 것이었다. 처음에 일본에서 한국을 향하여 라디오 전파를 발사하였던 방송국은 후쿠오카의 JOLK이었지만, 이밖에 100킬로와트 출력인 동경의 JOAB를 포함해서 일본 전역에 걸쳐 18개 방송시설에서 한반도 전역을 향하여 방송하였다.<sup>66)</sup> 공산측도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와 러시아 12곳에서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탐지되

61) Stephen E. Pease, 앞의 책, pp. 18-20. 1.

62) Memorandum, to:U-Mr. Webb from:J. Macnight-P, June 27, 1950, subject:VOA Facilities Plans Today(RG 59, Miscellaneous Records, Lot 57D459, box 8).

63) Stephen E. Pease, 앞의 책, p. 15. 3.

64) VOA and Korea(각주 29).

65) 각주 29.

66) Incoming Telecom, from:Tokyo to:Secretary of state, no:85, July 11;Outgoing Telecom, from:FE/P-Mr.Busick to:Scap, Tokyo, for USPOLAD(자료 3);July 12, 1950;Incoming Telecom, from:Tokyo to:Secretary of state, no:154, July 14(위와 같음).

었다.<sup>67)</sup>

동경 맥아더 사령부에서도 주일미군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NHK 송신시설을 빌려서 29일부터 긴급히 방송하였고, 다시 KBS에서도 중계하였다. 초기의 전단에 적힌 4개의 방송 주파수가 그것이다. 7월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소리(VUNC) 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역시 G-2의 특수작전계 아래 조직되어 있다가, 일년 뒤에 G-3 관할로 재편되었고, 후에 제1라디오방송전단집단에서 인수를 받아 운용하였다. 제8군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을 담당할 인원은 극동사령부에서 파견되었으나, 정기적인 정책 가이드를 제외하고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운용에 관한 서면 지시도 받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수복 후 KBS 서울방송국을 다시 열어 10월 1일 김일성에게 항복하라는 맥아더 원수의 메시지를 방송한 뒤에 그 이상의 작전을 하지 못하였다.<sup>68)</sup> 출력 50킬로와트인 서울방송국은 극동사령부에서 파견된 방송요원과 한국인 직원 등이 운영하였고, 프로그램은 뉴스, 뉴스논평, 음악, 드라마, 한국관리들의 연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소리와 동경의 유엔사 방송도 중계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청취자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라디오 수신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1950년 12월 현재 남한에는 약 7만대의 라디오 수신기가 있었지만, 미군은 전쟁의 발발과 1·4후퇴로 그나마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수신기 사정을 감안하면, 청취자의 숫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라디오를 듣는다면, 청취와 그 효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69)</sup>

67) Incoming Telecom, from: Tokyo to: Secretary of state, no: 154, July 14(위와 같음).

68) 각주 14.

69) Evaluation of Performance(자료 11), pp. 51-2.

## 3) 확성기 방송

확성기는 특정한 시점에서 한정된 작전 대상에게 심리전을 행하는 장비이므로 주로 전술 심리전 차원에서 피아가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항공기나, 잠차나 탱크 같은 차량에 확성기를 장착하여 적에게 근접하여 방송하거나 적이 바로 앞에 보이는 참호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는 선전은 적이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고, 많은 문맹자들이 읽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방법이었다. 여기에 음향효과까지 곁들여서 의외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대상을 알고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합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작전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전투 직전이나 직후에 거의 대면하는 거리에서 행하는 확성기 방송은 어떤 매체보다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확성기는 공보원이 이동선전차에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기병 제1사단 등에서도 확성기를 선전용으로 활용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sup>70)</sup> 그러나 장비가 많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심리전을 전개할 인원도 없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지상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은 적합한 장비와 숙련된 기술을 갖춘 특수부대가 배치되어야 본격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1950년 11월 미국에서 파견된 제1확성기전단중대는 제8군의 전체 전선에 걸쳐서 지상 확성기 팀을 배치하여 이듬해 3월 말에는 모두 9개 팀이 작전에 투입되었고,<sup>71)</sup> 이후 12개 팀으로 증강되었다. 제8군 예하 제1·9·10군단의 각 사단에는 적어도 한 개 팀이 배치되었고, 그들은 일주일에 평균 1회의 전술임무를 수행하였다. 약 1마일 거리에서 방송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과 지역에서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방송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횟수는 매우 적었고,

70) 자료 11, p. 23-4.

71) 각주 12.

적의 사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었다. 가장 적합한 대상들은 타격을 크게 입고, 고립되어 지속적인 압박 아래에 놓여 있는 적들이었다.<sup>72)</sup>

C-47과 같은 항공기에 확성기를 장착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1950년 10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시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을 녹음테이프에 담아 적군에게 방송하지만, 효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으므로, 한국인이나 중국인 요원들이 비행기에 탑승하여 직접 방송하였다.<sup>73)</sup> 확성기의 성능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대공포화가 닿지 못하는 7,000피트 상공에서 방송하는 내용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sup>74)</sup> 실제로 3월 토마호크작전에 참가하였던 한국군 장교도 그와 같은 경험을 말했다.<sup>75)</sup> 그러나 1951년 전반기에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아 지상에서 방송내용을 똑똑히 듣기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sup>76)</sup> 1951년 1월에서 7월까지 확성기를 장착한 비행기가 수행한 임무 횟수는 모두 231회로서 4월과 7월에 각각 52회와 66회를 기록하였고,<sup>77)</sup> 3월과 7월 사이에 2대의 비행기가 203시간을 작전하였다.<sup>78)</sup>

#### 4. 심리전 효과와 한계

6·25전쟁에서 전개된 심리전의 형태를 엄격히 구별한다면, 주로 전략적 작전이었고 전술적 작전에 속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양이었으며, 양자 사

72) 자료 22, p. 95.

73) Extra CT, Psychological Warfare, FEAF Weekly Roundup from 0001/I 9 Oct 50 to 2400/I 14 Oct 50(자료 10), p. 31.

74) 자료 22, p. 95.

75) 박찬웅, 『6·25 일지』, 아우내, 1994, p. 190.

76) Stephen E. Pease, 앞의 책, p. 112.

77) 자료 12, p. 110.

78) 자료 10, p. 50.

이의 작전이 많다고 분석되었다.<sup>79)</sup> 또한 인민군 포로의 투항 이유로는 음식 제공과 인간적인 대우가 가장 많았고, 정치적이며<sup>80)</sup>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전술적·전투적 심리전의 필요성이 컸지만, 이런 작전의 증가 속도는 가장 느렸다.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 작전을 줄여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균형은 필요하며, 특히 확장기와 전단 중대의 활동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장기적이며 정치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전략적 작전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던 실정에서 심리전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며, 적진에서 적군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읽어낸다는 것, 그것도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심문관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조사의 부정확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난점과 고충이 있더라도,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며, 작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과학적 방법도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개 심리전을 전개하는 측은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뚜렷하였으며, 반대로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측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심리전참모부가 6·25전쟁 심리전의 지원, 계획, 작전 등 전체 과정을 종합평가한 보고서를 보면,<sup>81)</sup> 비록 향후 작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매우 광범위하고 예리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전의 효과를 측정 분석하고, 적의 취약성을 파악해서 효력이 있는 심리전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포로를 심문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금방 생포하거나 항복한 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에 유리하였으므로, 심문관들은 일선에서 획득한 포로를 임시로 수용하

79) Further Development of US Psywar(자료 11), p. 64.

80) Stephen E. Pease, 앞의 책, p. 77.

81) 자료 15.

는 수용소를 빈번히 찾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곤란한 경우를 다수 겪었다. 제8군 심리전과의 첩보계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적합한 심문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자격자는 드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수가 낮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포로 심문은 필요할 때 즉시 할 수 있어야 하며, 포로들의 마음을 읽고, 태도와 의견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사회에도 정통해야 하였다.<sup>82)</sup> 처음에는 포로에게 심층 질문하는 방식을 구사하였지만, 조사대상이 너무 많았으므로 후에는 간단한 면접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sup>83)</sup> 이러한 조사방법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포로들은 심문자가 듣기를 원하고 좋아할 것 같은 답변을 하기 마련이었다.<sup>84)</sup>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 효과 조사자료의 신뢰성은 상당히 낮았고, 이런 한계는 당시에 지적되고 있었다.

그래도 심리전 담당자들은 심리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85)</sup> 예컨대 PWB는 1950년 10월 현재 전단의 효과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인민군들은 대량적으로 항복하고 있으며, 안전통행증명서 등 전단을 소지한 자가 40% 내지 60%, 또는 그 이상이 되며, 2,50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단을 읽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자들이 28.6%로 심리전 전단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측의 미군 심리전 모방과 역선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51년 극동사령부와 제8군은 심리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1951년 1월 이후 존 홉킨스 대학의 운용연구실이 6·25전쟁의 심리전에 관한 연구과제를 7개나 수행하였다. 이런 연구는 인적인 구성,

82) 각주 12.

83) Information Supplied by Intelligence Branch,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G 3 Section, for the Period 1 FEB 51- 1 Jun 52(자료 10), pp. 66-8.

84) Stephen E. Pease, 앞의 책, p. 47.

85) 자료 11, p. 51-3.

포로심문, 투항자 심문, 각 매체의 작전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 연구는 전단 살포로 1,200명의 유엔군 생명을 구하고, 1만 2,000명의 투항자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비행기 장착형 확성기 작전은 대상 지역을 100%를 커버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므로 전단보다 효과가 훨씬 컸다고 하였다. 반대로 비행기를 활용해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작전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작전 방법과 매체를 찾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또한 작전을 담당할 인력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대개 심리전을 담당하는 장교들은 심리전에 고도로 훈련된 인원이 아니었고, G-2의 다른 업무담당자가 파트 타임식으로 교대로 동원되었다.<sup>86)</sup>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심리전은 성공적인 공격작전을 동반하는 경우에 효과가 훨씬 컸다는 것이다.<sup>87)</sup> 바로 앞에서 기술한 PWB의 조사와 해석처럼, 흔히 심리전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되는 것은 인천상륙과 낙동강전선 돌파작전 이후 인민군이 급속히 궤멸하는 과정에서 얻은 포로들의 진술에 근거한 조사 결과이다.<sup>88)</sup> 이 자료를 엄격하게 재분석한다면, 심리전 자체의 효과보다는 재래식 전투력의 막강한 효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전의 근본 목적이 포로 획득보다는 적군의 전의 상실과 약화에 있는 것이라면, 심리전은 효과가 높은 중요한 전투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인을 상대로 심리전의 효과도 중요하다. 공보원이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선무작전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자. 공보원에서는 7월에 부산공보관 직원 53명을 동원하여 부산 주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과 전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86) 자료 11, p. 64-5.

87) Chapter 2(자료 9), p. 15.

88) 자료 11, Table III, p. 42.

요약할 수 있다.

- 가. 주민들은 전쟁발발 직후 미국의 태도와 정책에 커다란 불안을 느꼈지만, 라디오 방송과 신문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여겼다.
- 나. 주민들은 맥아더 사령부 방송과 일본 방송을 가장 믿을 만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공산군의 진격은 우려와 불안정을 낳고 있으며, 공산군의 진격은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 다. 주민들은 전단을 효과적이며 격려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뉴스를 접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서 전단은 중요하다. 경상남도 당국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가) 가능하다면 많은 전단을 살포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식을 알려주기 바란다.
  - 나) 부산방송국을 가능한 빨리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 일본방송의 전쟁 소식이 실제 도시와 마을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맥아더 사령부의 방송도 그렇게 하거나 일본방송이 실명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효과, 서툰 운영 방식, 매체와 수단의 부적절성 등으로 심리전은 적어도 6·25전쟁 초기에는 혼란스러웠으며, 비체계적이었고, 실험 성격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그 실험은 상당히 효과를 얻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었다.<sup>89)</sup>

## 5. 맺 음 말

6·25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만들기

---

89) 위와 같음.

시작하였던 미국은 6·25전쟁에서 3년이란 시간에 걸쳐서 심리전을 대규모로 전개함으로써 계획에서 작전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심리전을 체계화 할 수 있었다. 즉 6·25전쟁은 미국의 심리전 발전에 아주 좋은 학습장이자 실험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6·25전쟁 전반기, 특히 초기에 전개한 심리전은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극동사령부의 PWB가 심리전을 총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무부와 주한미국공보원 간에 심리전을 해외선전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자신들이 주도하고자 하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정부가 민간의 해외선전과 군부의 심리전을 분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경에 있던 PWB가 심리전을 총지휘하는 부서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인원이나 능력 등의 면에서 미비하기 그지없었다는 점도 원인의 하나였다. 공보원의 심리전도 비체계적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공보원 직원들은 한국 실정과 한국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쟁 초기에 현장에서 심리전을 주도할 수 있었다.

심리전의 목표와 주제는 전황과 대상, 종국적으로는 군사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 전쟁이 돌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즉각적인 개입 선언으로 준비를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각종 매체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안전하게 널리 전파를 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특히 전쟁 초기 미군의 심리전은 상당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국무부 등 관련 기관의 합동조정위원회에서 하달한 심리전 지침에 따라서 PWB가 주간계획과 정책 가이드선으로 만들어 일선 심리전에 내려 보내면, 제8군이나 공보원은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매체를 제작하거나 전파시기를 정하였다. 초기의 목표는 인민군 전력 약화, 전쟁의 진실 전파, 남한의 국군과 주민의 사기 양양이었고, 주제도 여기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전쟁발발에서 인천상륙작전 때까지는 심리전의 주요 대상은 적군보다는 오히려 남한 주민들이었다. 불신과 공포에 휩싸인 그들에게 유엔군의 참전

과 미국의 지원 등의 소식과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안도감과 자신감, 그리고 반공의식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특히 인민군의 공세기에 공보원이 전개한 이러한 선무 심리전은 상당히 주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패퇴하던 인민군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전단이 대량으로 살포되는 등 대대적인 선전 공세가 가해졌고, 수많은 공산군 포로들이 안전통행보장증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에는 그들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으므로 좀 더 치밀하고 대규모의 선전 작전이 필요하다. 이처럼 심리전은 전세에 따라서 작전의 대상, 목표, 주제, 매체가 달라졌다.

심리전 매체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은 전단으로 비행기나 야포 등을 이용해서 25억만장 이상 살포되었다. KBS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미국의 소리와 유엔군사령부의 소리방송은 주로 전략 심리전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대형 확성기를 비행기에 장착하는 방식이나 최전선에서 적과 대면해서 확성기로 방송하는 작전도 전개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대량적으로 사용된 심리전 상황에서 매체별, 또는 심리전 전체의 효과를 조사하고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포로의 심문도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군의 심리전이 6·25전쟁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심리전 관계자들은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원고투고일 : 2005. 4. 11,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한국전쟁, 심리전, 미군, 전단, 라디오

<ABSTRACT>

A Study of the U.S. Army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1950. 6~1951. 6)

Chang, Young-mi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outline on the U.S. Army psychological warfare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Korean War. U.S. government had begun to establish the policy for the psywar after World War II, and could make the psywar capabilities more systematical and effective by the carrying out the heavy psyops for three years. The Korean War was the very good learning and experimental fiel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sywar abilities.

The objects and themes of psywar are decided by the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s. The U.S. psywar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in the early stage of the war, it was not so easy to choose the proper object and theme. The PWB made the Weekly Plan and the Policy Guidance Memorandum under the basic policy guidance by the coordinating board of the 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isseminated them to the lower echelons. Then EUSAK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USIS) produced the materials, used them in the psyops.

But the U.S. Army psywar showed the many disabilities and ineffectiveness during the summer of 1950. First of all, the FEC, G-2, Psychological Warfare Branch(PWB) had the command, but the Department of State and USIS tried to get the power over the psyops in the conflict. Because the U.S. government did not separate the psywar and the foreign propaganda

as yet, and the PWB's manpower and ability were so small. Though the USIS's operations were confusing and inefficient, the staffs who were familiar with the Korean peoples and culture could play the important roles shortly after the war broken. And the USIS branches in the provinces provided the facilities for the operations.

The main target of the propaganda was the South Korean civilians until the U.N. Incheon Landing, because they in the panic and had the strong distrust on their government were needed the encouragement and information. The consolidation operations by the USIS had the considerable results to give them the news of U.S. and U.N. to help the Koreans. After the Inchoen Landing, the millions of leaflets were poured on the retreating communist army, many of the war prisoners possessed the safe conduct pass. It was interpreted as the effectiveness of the psyops. The more precise and heavy psyops executed on the Chinese Red Army. In this way, the targets, objects, themes, psyops and media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war situations.

The leaflet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and broadly used media, scattered over the enemy by the airplane and artillery. Radio broadcasts of the Voice of America, Voice of U.N. Command, the KBS network, and the NHK network were utilized in the strategic psywar. Even the huge loudspeakers attached to the airplane and the ground loudspeakers were effective psyops weapons. It was very difficul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sywar and media. The PW interrogation could not guarantee the correctiveness and trustworthy fully. Therefore the accurate evaluation of the U.S. Army Psywar outcome is not easy, but the most of personnels engaged in the psywar usually agreed that the psywar in the Korean War was effective.

Key Words : Korean War, Psychological War, U.S. Army, Leaflet, Radio